

##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 동 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최 종 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이 준 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

### 《 요 약 》

---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청각장애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료수집하였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 과정은 가면으로 가려지기 전의 '나', 가면으로 가려진 '나', 가면의 '고통', '가면'의 인식, '가면'을 벗으려는 시도,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의 '혼란', 혼란 속의 '안정', 미래에 대한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이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이전보다 점차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농인으로서의 '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이후에는 보다 발전된 농 정체성이 형성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청각장애 청소년, 농 정체성, 현상학적 연구

---

\* 이 논문은 박동진(2012)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wookana@hanmail.net)

## 1. 서론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을 결정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발달 과업이다. Erikson(1968)에 따르면 이러한 발달 과업은 청소년기에 주로 수행된다. 그는 이를 ‘자아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이며, 거대한 사회질서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달과업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청각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자아정체성의 약화, 다양한 문제의 발생, 가정 및 학교에서의 부적응 현상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이준우, 2003). 더욱이 이러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이 우리사회에 실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점차 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청각장애가 갖고 있는 ‘결함’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들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병리적 관점’에 기반하여 장애를 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각장애 청소년에게 장애로 인한 1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차, 3차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 청소년을 대함에 있어 자아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접근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는 바로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가운데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Padden, 1998; Woodward & Allen, 1990). 특히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영역보다도 남다른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수화’라고 하는 고유의 언어, 농 문화(Deaf culture)라고 하는 고유의 문화, 결집된 집단인 농 사회(Deaf community)등이다(김경진, 2006).

이와 함께 농 정체성(Deaf identity)이 있다. 이는 특히, 청각장애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서 농 사회(Deaf community)에 청각장애인 개인이 갖는 일체감을 말한다. 농 정체성은 Erikson(1968)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정체성으로, 청각장애인 개인이 농 사회를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소수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의 농 사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병리적 관점’을 거부하고 ‘농인(聾人, the Deaf)’이라는 용어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한다(이준우, 2003).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여 일반적 청각장애로 ‘청력상태’에 초점을 맞춰 청각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청각장애인’을 사용하고, 특히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칭할 때는 ‘농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농 정체성의 발달은 청각장애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개인적으로는 농 정체성이 발달할수록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인 행동을 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응력이 더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이준우, 2003). 또한 농 정체성이 발달할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조용순, 권요한, 2009). 농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여 병리적 관점이 아닌 이와 같은 청각장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그 이미지가 지닌 강점에 가치를 두는 것은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장애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성취의 의미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청각장애인 개인의 긍정적 인생 경험에 필요한 역량강화, 자아통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Rothman, 2008). 이러한 점에서 농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청각장애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 정체성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김명희(2001)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이규식(2001), 정진영(2002), 이준우(2003), 배진희(2003), 김영신(2004), 배성규(2006), 염동문(2009) 등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 정체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시도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아직은 그 움직임을 미미하고,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농 정체성을 측정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Glickman(1983), Glickman & Carey(1993), Fisher(2000), Fisher & Mcwhiter(2000) 등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변안하여 청각장애인의 농 정체성 수준, 영향요인,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기능 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 것이었다. 또한 국외 척도에 의한 측정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농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염동문, 2009)가 진행되었다. 농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등의 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의미 탐구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고, 활발하게 연구(L. Ross, 1999; T. Skelton & G. Valentine, 2003; R. Hole, 2007; B. D. Garrett, 2008; F. D. Bechter, 2009)가 진행되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당사자로부터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당사자의 시각에서의 의미와 그 경험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 연구들이므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국내의 농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밝혀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므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 정체성을 범주화된 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청각장애 청소년 당사자의 농 정체성을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각장애 청소년과 농 정체성

우리에게 일종의 삶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체성은 인간의 발달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삶의 과제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분명한 틀은 성인기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정립된다(사미자, 2003).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상호관계가 빈번하지 못하고 충분한 감정이입의 개발이 지연되어 사회·정서적 자립심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손희정, 2003).

특히 청각장애 청소년에게 있어 청소년기는 자신의 청각장애를 바람직하게 수용하고 음성언어 중심의 일반 사회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농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이다(Weinberg & Sterritt, 1986).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특수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받으며 동시에 원활한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고(Leigh, 1999),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갖춰지는 중요한 시기이다(이준우, 2003). 이때 정착된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은 이후의 사회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Glickman & Carey, 1993). 따라서 청각장애 청소년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더욱 요구된다(윤나비, 이소현, 2007).

### 2. 농 정체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농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Holcomb

(1997)은 농 공동체나 수화에 대한 노출을 농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농 정체성을 균형적 이중문화 정체성, 농인 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 청인 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 문화적 분리 정체성, 문화적 고립 정체성, 문화적 주변 정체성, 문화적 포로 정체성과 같이 7개로 범주화하였다. Weinberg와 Sterritt(1986)은 농인 정체성과 청인 중심 정체성, 이중 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Maxwell(1990)은 농인 정체성과 청인 중심 정체성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문화적인 관점에서 농 정체성을 살펴본 Glickman(1993)은 청인 중심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 정체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Moten과 Sue(1989)는 농 정체성이 이중문화 정체성을 향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며 부합, 불일치, 저항과 몰입, 자기성찰, 통합된 인식의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염동문, 2009 재인용). 한편 Bat-Chava(2000)는 농 정체성의 변화를 단계적인 발달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 개인이 어느 하나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특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정체성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각 정체성의 특성을 높게 혹은 낮게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염동문, 2009).

국내 선행연구 중 직접적으로 ‘농 정체성’을 다룬 연구로는 김명희(2001), 정진영(2002), 이준우(2003), 배진희(2003), 김영신(2005), 배성규(2006), 염동문(2009)의 연구가 있다. 농 정체성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이에 기반을 둔 농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근 국외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청각장애인의 농 정체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청각장애인의 삶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Skelton과 Valentine(2003)은 영국의 젊은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농 정체성을 자기인식과의 교차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Hole(2007)은 세 명의 청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주의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이들 세 여성에게 있어 청력 손실의 의미와 건청인 중심의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농 정체성을 구축하고 살아가는지를 연구하였다. Bechter(2009)는 수화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청각장애인에 주목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현상학적 본질 직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던졌던 물음은 “청각장애 청소년은 농 정체성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이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2011년 현재, 모두 서울 소재의 동일한 농학교 고등부까지 졸업한 학생으로서, 서울 소재 청각장애 학생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20세의 청각장애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 4명이다. 연구자가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4명을 선정한 이유는 그들과 연구자는 2-3년 이상 교류를 하여 왔으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현상학적 본질 직관을 피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오랜기간 동안 이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농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여 왔고, 농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겪었을 경험을 충분히 진술해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들은 농 정체성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해 왔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주 표현하여왔다. 또한 그들은 친구나 교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따라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농 정체성에 관한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다. 연구자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아래 연구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 왔다.

〈표 1〉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농학교 재학 시기	농학교 성향	부모	사용 언어	청각장애 최초진단 시기	인공와우수술		
									수술 여부	수술 시기	현재 사용 여부
연구 참여자 1	여	20	고졸	유-고	구화지향 수화혼용	부모 청인	수화, 구화	4세	했음	14세	사용
연구 참여자 2	여	20	고졸	유-고	구화지향 수화혼용	부모 청인	수화, 구화	2세	했음	12세	사용
연구 참여자 3	여	20	고졸	유, 중-고	구화지향 수화혼용	부모 청인	수화, 구화	4세	했음	10세	사용
연구 참여자 4	여	20	고졸	유-고	구화지향 수화혼용	부모 청인	수화, 구화	4세	안했음	-	-

※ 농학교 재학시기 - 유: 유치원,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

연구 참여자들은 4명 모두 20세 여자이며, 모두 학력은 고졸이다. 이들이 농학교에 재학한 시기를 보면 연구 참여자 3은 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하였으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농학교에 재학하였다. 연구 참여자 1, 2, 4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농학교에 재학하였다. 이 중 연구 참여자 2의 경우는 초등학교 재학 중 약 2년은 일반초등학교에 재학한 바 있었다. 연구 참여자 1, 2, 3, 4 모두 유치원도 농학교 유치부에 재학하였는데, 이 중 연구 참여자 3만 타 농학교 유치부에 재학하였다. 이들이 재학하였던 농학교의 성향을 살펴본 결과, 구화를 지향하며 수화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학교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바에 따른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는 모두 청인이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 및 구화였다. 또한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 4를 제외한 3명 모두 한 상태였으며, 수술시기는 연구 참여자 1은 14세, 연구 참여자 2는 12세, 연구 참여자 3은 1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가 진행된 현재까지도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었다.

### 3. 연구 진행

#### 1)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바로 20세기의 가장 주요한 철학

운동 중 하나인 ‘현상학’에 근거한 연구 방법이다. 현상학을 처음 주창한 학자는 바로 Edmund Husserl이며, 현상학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현상과 경험의 의미를 찾으려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Husserl은 의식으로 경험한 현상을 어떠한 전제를 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를 직접 기술하고 연구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Crotty, 1996/2001). 또한 ‘Zu den Sachen selbst(사태 그 자체로)’라는 말로 인간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경험을 중시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는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것으로 사태 그 자체의 경험을 직관에 의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순수한 의식의 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에 근거한 현상학적 연구는 위에서 말한 현상학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구 방법으로서,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이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상학적인 태도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

## 2)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대한 선(先)이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도구으로써 사용되는 연구자에 대한 사전파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질적 연구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구자를 통하여 현상이 기록되고 분석되므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관점들이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직접 진행한 연구자가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갖게 된 선이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Deaf)’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1년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청각장애인들을 접하고 있고 수화통역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공부방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충실하기보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 연구 참여자가 동조하게 되거나 본 연구자의 경험과 관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통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상태에서 연구과정에 참여하였다.

## 3) 현상학적 태도 갖추기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현상학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학적 태도를 갖추는 것은 연구자 자신이 관심을 갖는 현상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하여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Manen, 1997/2000).

연구자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형성한 질문은 서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농 정체성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이다. 연구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경험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자의 변화과정을 면밀히 탐색하고 고찰하여 연구과정의 엄격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비디오 촬영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에 대해 기술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대면하여 동의한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 5)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이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2011년 1월부터 4월초까지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틀을 설정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초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참여관찰, 심층면접 외의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공식적 대화와 현상학적 문헌(기존의 연구물들)과 문학, 전기 그리고 예술작품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주 1-2회씩 청각장애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공부방에 가서 회당 4시간-8시간씩 진행하였고, 관찰한 내용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심층면접은 1인당 평균 1시간 30분 정도씩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관심사항을 처음부터 질문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직접 수화로 진행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청각장애 청소년이 수화를 사용하여 면담하는 사람에게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기 때문이며(배진희, 2001), 제3자인 통역자를 통한 면담보다는 직접적인 면담이 연구 목적에 맞는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훨씬 정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비디오 촬영을 한 후, 연구자가 촬영본을 보고 문자 형태로 필사하였다.

## 6)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다.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신경림 외, 2004 재인용).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Colaizzi, Giorgi, Van Kaam, Van Manen 등이 제시한 방법들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헤령(2009)은 연구자의 민감한 성찰을 필요로 하는 연구절차들을 고정된 연구 기법으로 인식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상학의 근본 취지에 상반되는 실증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상학적 연구절차에 내포된 연구논리들과 이론적 맥락을 조명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현상학적 연구의 주요 원리인 의식의 ‘지향성’, ‘판단중지’, ‘환원’, ‘본질직관’, ‘자유변경’ 등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특정 학자가 제시한 연구 방법을 따르기 보다는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연구 방법에 내포된 현상학의 사상적 원리와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 연구 논리를 충실히 따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들을 고찰한 후, 다음에 제시한 과정을 기초로 하여 위에 제시한 연구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가운데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주제/분석주제 정하기, 둘째, 자료읽기, 셋째, ‘의미’ 발견, 넷째, 공통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다섯째, 의미단위 명명하기, 여섯째, 범주의 발견, 일곱째, 범주화하기. 여덟째, 범주 간 관계 알기, 아홉째, 현상학적 글쓰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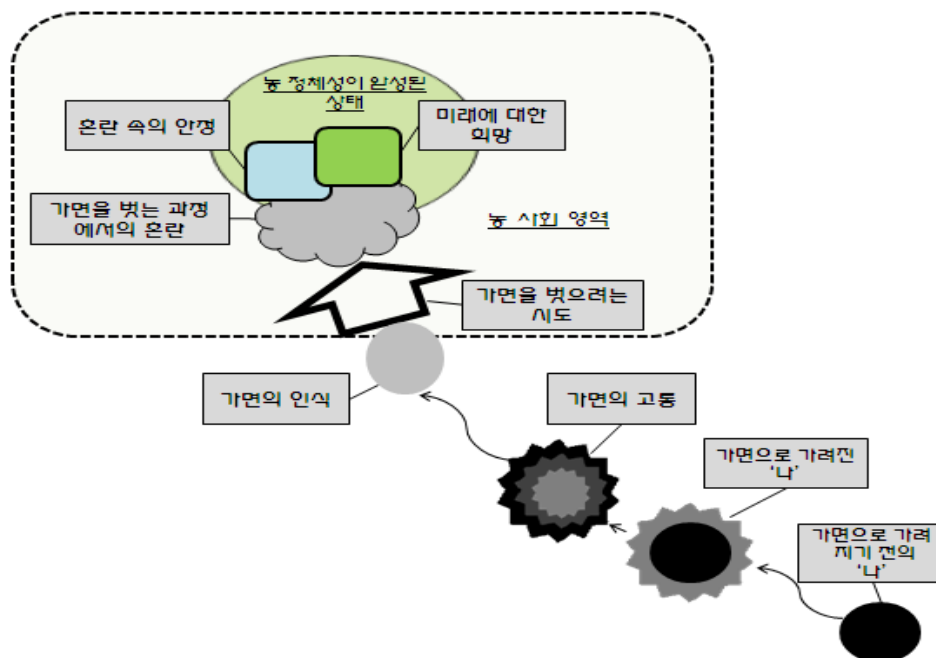
## IV. 연구 결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가면’을 중심으로 농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청각장애 청소년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면’이라는 상징어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가면’이라는 것은 청각장애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청각장애에 대하여 사회가 부정적으로 형성하여 부여하고, 청각장애인 스스로도 갖게 되는 스티그마(Stigma)이다. 스티그마는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하게 되는데, 청각장애 청소년은 점차 이러한 스티그마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 청소년의 본래 모습을 가리는 것으로서 ‘가면’이라는 상징어가 도출하게 된 것이다.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은 현재진행형이며, 일직선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진행과 퇴보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이는 <그림 1>에서 진행방향선 중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이 혼재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각 과정을 상징하는 도형의 겹침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

### 1. 가면으로 가려지기 전의 ‘나’ (무지(無知)의 평온함)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에서의 첫 번째 과정은 가면으로 가려지기 전의 ‘나’이다.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던 시기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청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청각장애라고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듣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든 알지 못했던 간에 연구 참여자들은 아직 청각장애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경험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도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무지의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가면으로 가려진 ‘나’

두 번째 과정은 가면으로 가려진 ‘나’이다. ‘듣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는 ‘가면’으로 가려짐을 경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사회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함께 청각장애인 스스로도 이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다름’의 발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친구들 혹은 혼자 놀던 중에 청인 친구, 엄마 등과 같은 타자(他者)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청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청각에 의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청각장애가 발생한 것은 연구 참여자가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경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청각장애가 발생한 후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의 청각장애로 인한 경험은 연속적으로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깨닫기 이전의 경험에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어떤 특정 시점에서 깨닫는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전의 경험들과는 달리 ‘청각장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한 특정 시점에서 겪은 경험을 특별히 유의미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 2) ‘다름’으로 인한 괴로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적인 청각장애 발생과는 별도로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를 초등학교 시기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상황을 ‘괴롭다’, ‘죽고 싶다’, ‘원망’, ‘충격’, ‘자살’, ‘세상이 좁아짐’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

다. 그들에게 있어서 청각장애는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각인되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청각장애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실재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청각장애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은 극도로 불안해하며,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각장애는 ‘괴로운 것’, ‘죽고 싶게 만드는 것’, ‘잘못한 것’, ‘(부모가 자신에게) 미안해야 하는 것’, ‘충격 받는 것’, ‘세상을 좁게 만드는 것’, ‘원망스러운 것’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청각장애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그 때에도 청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경험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이 청각장애 청소년에게 씌워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 스스로도 이 ‘가면’을 점차 자신에게 씌웠음을 발견할 수 있다.

### 3. 가면의 ‘고통’

세 번째 과정은 가면의 ‘고통’이다. ‘가면’을 완전히 쓴 상태에서 겪게 되는 고통에 관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에 이어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경험한다.

#### 1) ‘말’ 해야 한다는 고통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구화’를 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 교사는 구화를 하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구화를 못하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발음교정을 받아야 했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수치감까지 느껴야 했다. 이것에 대해 그들은 공통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학교 교사와 같은 주변 인물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구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은 마치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이에 그들은 분노를 느끼고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 깊은 속에 질게 드리워져있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구화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실패자로 낙인찍히고 아무도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화를 잘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일종의 규범으로서 크게 작용하여 왔다.

## 2) 열등한 존재로서의 ‘나’ 인식

연구 참여자는 청인을 우월한 존재, 기준이 되는 존재로서 인식한 반면, 자신들을 청인에 대해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 혹은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감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보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청각장애 친구를 ‘바보’ 같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공부에 관심 없고, 문장도 못쓰고, 말도 서툴고 아직 수화를 못하는 존재를 ‘바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비쳐지는 청각장애인인 자신은 청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연구 참여자 1’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는데 그것을 한 이유로 청인처럼 똑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위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청각장애인인 자신에서 벗어나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청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해야 했다. 인공와우 수술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치료실을 한 번에 두 군데를 다닐 정도로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절망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공와우 수술과 5년 동안의 언어치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만큼 청인과 똑같이 되기를 매우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실패’, ‘절망’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은 열등한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열등한 존재로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열등한 존재인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실패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생 전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에 집중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인생 전반의 목표가 되어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다름’에 대한 소외와 차별

#### (1) 또래집단에서의 경험

연구 참여자는 일반 초등학교에 청인들과 함께 재학하고 있는 중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청각장애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소외’였다. 자신은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실에서 나가라고 연구 참여자에게 요구하기까지 한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연구 참여자 자신이 ‘청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대우를 경험한 것이다. 이것은 소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와 학원 현장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받고 적절하게 대우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경험한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의 또래집단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수업환경 또한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는 어떠한 시도 대신 따로 책을 읽는다든지, 학원을 결석하는 등의 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은 그들과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구 참여자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소외와 차별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상황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속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야 함을 의미한다.

#### (2) 가족에서의 경험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 중 청각장애인이 참여자 혼자이고 나머지 가족은 청인인 관계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족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가족들이 의도를 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연구 참여자는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연구 참여자가 가족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를 계속 하지만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해주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가족들이 애정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연구 참여자가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족들이 청각장애인인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와 언행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는 이로 인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고 있음에 서운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친척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명절과 같은 때에 친척집에서 친척들과 만나게 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와 친척들과의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친척들로부터 충분히 대화대상으로서 고려되거나 배려받지 못하고 있음에 서운함을 경험하고 있다.

#### 4) ‘수화하는 것’의 부끄러움

수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다름’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는 같은 또래처럼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화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평범함에서 벗어난 평범하지 않은 것, 즉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연구 참여자로서 하여금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과정에서의 ‘구화’의 강조와 이에 따른 요구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구화가 아닌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구화를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에 내포되어있는 ‘청인과 같아지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와 연구 참여자의 주변환경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 참여자는 수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화’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직은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자신과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집단에 동조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화를 접하면서 재미를 느꼈지만 그것이 곧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고의 확장을 하게 되자, 수화를 선택하였을 때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예상하게 한다. 수화가 아닌 말을 잘하는 것, 즉 구화를 잘하는 것이 곧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곧 수화를 하는 것이 스스로 불쌍한 존재인 농인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수화를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 4. 가면의 ‘인식’

네 번째 과정은 가면의 ‘인식’이다. 연구 참여자는 점차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가면’안의 본래 ‘나’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부여하고,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로 씌웠던 ‘가면’으로 가려진 모습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자신이 ‘가면’으로 가려졌을 때에 고통을 경험한 것과는 달리 ‘농인’과 관

련된 경험을 하면서 점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농인과 관련된 경험은 농 사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1) '나'의 언어를 발견함

연구 참여자는 점차 구화와 수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는 그동안 구화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지만 점차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과거 수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태도에서 점차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화를 함에 있어서 느껴지는 '편안함'은 점차 연구 참여자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많이 울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수화를 접했을 때와는 달리 수화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벗어나고 점차 수화에 대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과거 수화를 접했을 때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애써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거부하고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태도에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자 역시 수화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며, 점차 농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편안함'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을 '참 기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전의 경험에서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편안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구화를 하는 데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경험임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 2) 동질적인 존재와의 만남

연구 참여자가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온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전환점이 된다. 일반학교에서는 매우 괴롭고 힘들었지만, 농학교에 왔을 때는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곧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남과 동시에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때문이다. 일반학교에서는 청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존재로 지냈지만, 농학교에 와서는 이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마음에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농학교에는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농인 교사가 존재한다. 이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타자를 만남을 의미하며, 이로써 농인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긍정적인 경험이라 함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농인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로서 살아가는 농인 선배인 농인 교사가 긍정적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 3)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안내’

연구 참여자가 점차 자신에게 켜워졌던 ‘가면’을 인식하고, 동시에 그로 인해 드러나는 농인으로서의 ‘나’를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을 보면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과 함께, 의미있는 타자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공부방에 들어와서 처음 농 정체성에 대해서 접하게 된다. 농 정체성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타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었을 때, 연구 참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점차 인식하게 되고,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농인인 것을 점차 인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청인과 같기 위해 애썼다면 이로 인하여 청인과 같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과거 청인과 같게 되기를 요구하였던 주변 사람들과 달리 공부방 교사는 농인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안내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본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본래 ‘나’의 모습을 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는 농 정체성에 대해서 안내해준 공부방 교사가 ‘삶의 전환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실수로 청각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농인을 고이 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삶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거에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에서 완전하게 전환하게 되는 경험을 의미있는 타자의 안내를 통해서 갖게 된다.

## 5. 가면을 벗으려는 ‘시도’

다섯 번째 과정은 가면을 벗으려는 ‘시도’이다. 점차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신이 과거에 인식하고 있던 부정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아닌 또 다른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의 ‘나’로 인식하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이전 과정에서 말하였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이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1)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학교 교사에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면’의 고통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교사의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화이고, 학생들에게 너무 억지로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너무 억지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구화를 말한다. 이것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수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의 모국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구화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것’, ‘자신을 고문하는 것’,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교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이러한 상황이 변화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이 받고 있는 가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부당함’에 대한 대항

연구 참여자는 문제제기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행동의 형태는 ‘대항’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라는 공간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글의 내용은 앞선 문제제기 부분에서 나타난 것으로써, 인식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라는 공식적인 공간에 글을 올림으로써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문제제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 제기한 글에 대하여 교사가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논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6.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의 ‘혼란’

여섯 번째 과정은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의 ‘혼란’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나’의 본래 모습은 연구 참여자 본인이 가장 편안해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을 말한다. 이를 연구 참여자들은 ‘농인’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혼란’은 기존에 연구 참여자가 쓰고 있던 ‘가면’에 가하졌던 여러 가지 요구와 압력,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이 연구 참여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앞선 과정보다 농 정체성이 발전되는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선 과정보다 더욱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애매모호한 경계선

점차 자신을 농인으로 인식하고, 수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농인인지, 아니면 구화인인지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연구 참여자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들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메시지들이 서로 얽히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화를 사용해야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청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점차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된 농인과 관련된 메시지 사이에 형성된 애매모호한 경계선 상에 자신이 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에 자신이 추구해왔던 삶에서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변화가 혹시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농인이면서 지금까지 말할 것을 요구받았던 경험, 즉 구화할 것으로 요구받았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수화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농인인지 청인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화를 사용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더 길고, 구화를 할 것을 계속 요구받았던 것을 보았을 때 사회에서 그러한 요구를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인’이라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에게 요구된 ‘농인이 아닌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농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한 후 마음이 편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고, 여전히 구화를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농인’으로서의 ‘나’를 온전히 추구하기에는 ‘청인’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연구 참여자 3은 ‘아직 마음 속에 청인이

남아있다' 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청인과 같은 사고방식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스스로 그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하였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를 볼 때 연구 참여자는 '혼란' 이라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전 과정보다 더욱 농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탐색하는 경험을 더욱 많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 2) 두 개의 이질적인 세계

### (1) 변화가 없는 바깥 세계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신을 청인처럼 살게 하는 환경에 대해 대항하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들이 '가면' 을 벗고 본래의 '나' 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깥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은 이 바깥 세계와 마주쳤을 때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농인' 이라는 것과 이것이 긍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공부방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감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맞서보려고 하지만 결국 성과없이 졸업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 요구에 따를 때와는 다른 성격의 것임을 알게 된다.

### (2) 이중적인 세계

연구 참여자 자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주변 사람들이 보내오는 메시지에 의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농인으로서의 '나' 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 는 겉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그것에 반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인정을 받지 못함'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구화를 사용하고자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가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오히려 관계가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같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런

저항들은 마음껏 자신이 ‘농인’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가면을 벗고자하는 ‘시도’에 있어서도 연구 참여자 자신과 동질집단이라고 여겼던 농인 교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청인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농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농인 교사를 통하여 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는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농인’으로서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청인에 대해서도 동등한 존재로서 행동을 취하는 농인 교사의 모습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달리 ‘농인’으로서 당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청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농인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농인’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인교사의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농인 교사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부분에서는 농인은 청인의 압력을 받는 것이 농인 교사와 같은 위치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 7. 혼란 속의 ‘안정’

일곱 번째 과정은 혼란 속의 ‘평안’이다. 이 과정은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의 ‘혼란’에 다음 과정으로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된다. 여기서 안정적인 모습이란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농인’으로서의 ‘나’를 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그것이 중단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농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점차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 1)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형성

점차 자신이 농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수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혼란을 겪으면서 점차 자신을 ‘농인으로서의 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점차 안정된 삶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수화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을 정리하고, 수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혼란 시기에는 구화를 해야 하는지, 수화를 해야 하는지 애매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제는 더욱 수화를 편하게 받아들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본래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을 ‘농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차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점차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농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전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수화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농인들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것에서 변화하여 다른 농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중심적인 농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 농인들은 문장도 잘 모르고, 말도 못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서 농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수화를 받아들이고 농인들과의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농인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다름’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다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에서 얻는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 2) 명확해지는 ‘농인’에 관한 개념 형성

### (1) ‘농인’에 대한 개념 형성

기존에 자신들을 일컫던 ‘청각장애인’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농인’이라고 일컫기 시작하였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 밝힐 정도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특히, 농인이라면 ‘농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듣지 못함’과 무관하게 ‘농인인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자신들과 ‘이질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를 명확히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들이 ‘농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농인과 청인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듣지 못함’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볼 수 있음’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자신은 어떤 결함이 있고 부족한 존재이기보다는 청인과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농 정체성에 대한 개념 형성

연구 참여자는 농인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농 정체성에 대한 개념도 밝히고 있다. 이는 농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같은 농인에 대해서 동일의식을 느끼고 수용하는 등에 모습을 보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같은 농인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농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연구 참여자도 농 정체성의 요소로 수화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농인의 언어라고 밝히고 있는 수화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농인에게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긍정적인 삶의 태도

점점 공부방 교사를 통하여 농인에 대한 삶과 농인의 언어인 수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농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써 자신을 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인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당당한 태도로 학교 교사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청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이 농인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점차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 8. 미래에 대한 ‘희망’

여덟 번째 과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 과정은 독립된 과정이 아니며, 여섯 번째 과정인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일곱 번째 과정인 혼란 속의 안정과 함께 혼재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에는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다.

### 1) 희망적인 삶의 의지를 다짐

농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고 있는 농인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농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선배와 같은 모습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농인 선배로부터 ‘희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삶의 목표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의미 있는 타자인 공부방 교사로부터 받았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삶이 더욱 안정되고, 농인으로서의 삶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희망적인 삶의 추구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긍정적인 것들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삶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 스스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스스로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생활방식, 말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여전히 주변환경은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청각장애 청소년은 농 정체성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상학적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청각장애 청소년은 가면으로 가려지기 전의 ‘나’와 가면으로 가려진 ‘나’로 구분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험, 즉 청인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자아의 삶을 경험하면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구화에 대한 주위의 강한 요구로부터 벗어나 점차 수화를 익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상태의 동료나 공부방 교사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타자와 긴밀하게 교류함으로써 ‘가면을 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본래의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삶의 전환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들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나 그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자신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해온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항을 해 보지만 본인조차도 자신이 농인인지 혹은 구화인인지 그 정체성의 불명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의외로 주변의 시각은 완고함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그들은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혼란을 겪게 되나 그러면서도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며, 보다 희망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섯째, 하지만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은 이러한 과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나, 이전보다 점차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며, 농인으로서의 ‘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보다 발전된 농 정체성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각장애 청소년들에게 ‘가면쓰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가족이나 교사 등과 같이 주변의 주요한 타자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농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자각현상이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주변의 물 이해과 사회적인 벽이 실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각종 사회적인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이 불안을 겪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농 정체성을 찾은 이후에도 청각장애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 희망을 경험하게 되나 다시 불안감, 낮은 자의식, 생활스트레스 등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 정체성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단체(인 사)한국농아인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로서 ‘운동(movement)’ 차원에서만 소극적으로 농 정체성이 다루어지고, 또한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을 위해서 사)한국농아인협회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관련기관들이 나서서 사회문화적 관점의 농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활동과 논의를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는 이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청각장애 청소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당초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탐구를 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전체 청각장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에 모두 적용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보다 다양화해서 보다 일반성 높은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농 정체성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청각장애 청소년 당사자 입장을 통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 정체성이 접근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진 (2006).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명희 (2001). 청각장애인의 농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신 (2005). 농 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동화가 농학생의 농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배성규 (2006). 청각장애인의 이중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진희 (2001). 청각장애학생의 청력손실 정도와 상담자의 의사소통양식에 따른 호감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배진희 (2003). 청각장애 내담자들 간의 다양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4(2), 267-279.
- 사미자 (2003).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20, 371-394.
- 손희정 (2003). 청각장애 학생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염동문 (2009). 청각장애인의 농 정체성 척도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유혜령 (2009). 교육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1), 37-46.
- 윤나비, 이소현 (2007). 청각장애 청소년의 멘토링 경험과 자아정체감 관계분석 - 청각장애 학교 고등부 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6(1), 71-96.
- 이준우 (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정진영 (2002). 수화무용이 자아개념과 농 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 아동교육연구*, 4(2), 99-120.
- 조용순, 권요한 (2009). 농인의 농문화에 대한 태도와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특수 아동교육연구*, 11(1), 263-284.
- Bat-Chava, Y. (2000). Diversity of Deaf identiti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5(5), 420-428.
- Bechter, F. (2009). Of deaf lives: convert culture and the dialogic of ASL storytelling.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Crotty, M. (1996). *현상학적 연구*. 신경림·공병혜 역. 서울: 현문사.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
- Fisher, L. C. (2000).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and self concept of adults who deaf: A comparative analysis. Arizona State University.
- Fisher, L. C., & McWhiter, J. J. (2000). The Deaf Identity Development Scale: A Revis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55-358.

- Glickman, N. S., & Carey, J. C. (1993). Measuring deaf cultural identiti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38*(4), 275-283.
- Glickman, N. S. (1993).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olcomb, R. (1997). Development of Deaf bicultural ident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2), 89-93.
- Hole, R. (2007). Narratives of identity: A poststructural analysis of three Deaf women's life stories. *Narrative Inquiry, 17*(2), 259-278.
- Leigh, I. W. (1999). *Psychotherapy with Deaf Clients from Diverse Group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anen, V. (1997). **체험연구**. 신경림 역(2000). 서울: 현문사.
- Maxwell, M. (1990). Simultaneous communication: The State of the Art and proposals for change. *Sign Language Studies, 69*, 333-390.
- Padden C. (1998). From the cultural the bicultural: the modern Deaf community, In I. Parasnian(Ed.),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and the deaf exper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79-98,
- Rothman, J. C. (2003).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실천**. 이준우 역(2008). 서울: 도서출판 파란마음.
- Skelton, T., & Valentine, G. (2003). 'It feels like being Deaf is normal': an exploration into the complexities of defining D/deafness and young D/deaf people's identities. *The Canadian Geographer, 47*(4), 451-466.
- Weinberg, N., & Sterritt, M.(1986). Disability and identity: A study of identity patterns in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Rehabilitation Psychology, 31*(2), 95-102.
- Woodward, J., & Allen. (1990). Classroom use of Artificial Sign System by Teachers. *Sign Language Studies, 61*, 405-418.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eaf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Deaf Youths

**Park, Dong J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Choi, Jong Hyug**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Lee, Jun Woo**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for Deaf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Deaf youths. For this, it is collected the resources through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and used the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in analysis process.

The Deaf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Deaf youths displayed to experience of 'I' before masked, 'I' masked, 'Agony' of mask, acknowledgement of 'Mask,' removable try of 'Mask,' 'Confusion' in the process of removing the mask, 'Secure'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 'Hope' for the future. The Deaf identity formation of Deaf youths was not finished, but it is processed. The better process of the Deaf identity which the Deaf youth could be gaining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I'.

**Key Words** : Deaf Youth, Deaf Identity, Phenomenological Study

---

논문 접수: 2012. 08. 05 심사 시작: 2012. 08. 10 게재 확정: 2012. 09. 09